朝鮮日報

十九日夕刊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所謂差別行爲

×

『差別行爲』를 말하는것은 얼써진사의 의잡고며가트다고 아지匿言하는者가잇다 그는 『差別』그것의우에 現朝鮮의 統治關係가 設定되어잇는것을 밋는까닭일것이다 그러나이러한글직한問題는실격비켜놋코 우선케각기압헤다닥쳐오는問題에對하야 抗爭하는方策을가지고나아가게된다 京城府北部市區改正과 市街地整理事業의經費를 一般收益者의 負擔으로하기로하고 大部의朝鮮人住民에게 約一坪十圓의賦課金을 물리도록하자는것이 近者問題되는京城府收益稅그것이다 여긔에 對하야는 北部住民諸氏의抗爭의氣勢가 꽉즙허가는中인것가트나 힘닷는대로抗爭하는것은꽉조흔일일것이다

×

東小門內六七個洞里의住民들은 都市施設上의差別行爲를理由로서 또한大會를開催하야 그對應策을講究하게되엇다 그는東小門內一帶가朝鮮人本位의住宅地된까닭에지금外지諸般施設이 꽉等閑하게되어왓다는것으로因하야今後에는 京城府內다른市街와一例로改善하여달라는請求를 하고자함이다 道路擴張 電車延長 下水道改築 道路撒水및其他의要求條項이잇다한다 差別行爲에依하야 자못酷甚한苦痛을 밧든同區域의住民들로서는말지못할要求일것이다 西大門外平洞 松月洞및其他各洞里도 道路의좁은것과 下水道의不完全함

×

等은 곳지嘉이정게이를파곳고 어두은밤에行人이이마를맛부늣게되니 이러한例는朝鮮人의市街인것에 原因으로到處에서당하고잇는일이다

×

시골에水利組合問題가잇고 서울에市街地整理問題가잇스니 모다朝鮮人을 驅逐하는結果로떨허지고말기는마찬가지이다 그러치아니하면이에對한抗爭을繼續일는지 朝鮮人은참게쫓겨갈는지 들中에하나를 골라잡게되엇다 產米增殖土地改良의소리가놉흐니만큼 移住하여가는 아니其實은文字대로 쫓겨가는朝鮮人이당북만히느는것은 무엇보담도 現下朝鮮의現狀을살피는代表的인材料가되는것이다 自己의處地내로 職業대로 온갓方面에서團結로써그生存權의擁護運動을하는것이꽉必要한 時下의政策인것을

×

다시한번생각케한다

×

全北沃溝에서는 日本人校長을 執定的으로採用할을因하야 朝鮮人兒童敎育이 財政困難으로因한犧牲는 一層酷甚하게밧는것이라는抗爭이생겻다 江原道春川에서는 水利組合의弊害인 日本人의佛給을 法外의高額으로함으로 貧弱한水利組合그것의運命에外지關係된다는抗爭이잇다 京城內에서만도 財團法人으로된 朝鮮人私立學校가거의全部인 日本人職員들의豐富한生活費를 支出함으로因하야 그健全한發展을해롭게하는實例가업지안타 이러한것은 큰問題에서도그러하고작은問題에서도그러함을보는바이다 이差別行爲그것은온갓의形式으로그의存在한全時期에通하야抗爭을자어낼것이라고할것이다

戰雲에包圍된南京城
城外에는革軍、空中에는飛機
戒嚴令中의市況寂寞

(南京十八日發) 南京의南方二十里인太平方面에서는賀耀祖、王普의合體인南軍이 猛烈히南京에殺到함으로 山東軍司令部는最大輸送力으로每日에三四千의部隊를 津浦線으로부터南京에集中하야 各戰線에派送하고飛行機는時時로上空에飛來함으로 上海에避難하는사람이만코城內에는 벌서戒嚴令이施行되고商店은掠奪을두려워하야 商品을隱匿시키고正私服憲兵은午前一時부터 全市의交通을禁止하며燈火를消滅시키니 三千의歌妓가모다上海에逃走하야 歌舞巷의南京도寂寞莫甚하더라

龍華銃聲轟轟

(上海十八日發) 十八日午後九時 龍華方面에서銃隊이轟轟한것은戰事가發生된貌樣이더라

吳江確實陷落
松江에戰鬪開始

(上海十八日發) 吳江은十七日夜國民軍에게確實히占領되고松江方面에는十八日朝부터兩軍의戰鬪가始되엇더라

市民一大動搖

(上海十八日發) 十七日夜深更에秣稜關을占領한南軍은南京을向하야進擊中인바이까닭에南京市民은一大動搖가되엇더라

常州大警戒
無錫도混亂또恐慌

(上海十八日發) 宜興方面에서撤退하여온白寶山、鄭俊彥、馮紹閔等은常州城內에들어와馮紹閔氏를推戴하야戒嚴司令으로삼고警戒에任하엿는데城內外는恐慌混亂中에잇스며또한常州無錫境界인虞橋鎭에國民黨軍一部가出現한까닭에無錫도또한恐慌中에잇더라

王永江氏渡日
遊覽目的

前奉天省長王永江氏渡日說에對하야政治的方面의使命을帶하고

十九日부터
總罷業命令
南軍의上海占領外

(上海十八日發) 上海總工會는十九日부터上海를占領하기까지總罷業을하이를宣하엿다고傳하더라

蔣氏貶秩
委員改選結果

安直派重大協議
田中玉氏赴津結果

英米以外
駐外各使節
經費不拂維持困難
繼續歸國中

鹽務署關係
外人全部留任

新大淨渠建造
協定批准

佛露舊債
處理交涉

山東軍이
上海를抛棄?
兩張이善後策을協議

酒煙草六割稅
直隷省에서苦肉策

釋放斡旋
日本에依賴

愛蘭地位變化
自治領締約權認定
英外相이國際聯盟에通告
英帝國國璽外지改造

農露政府
極東鐵道網計劃
西伯利에二幹線選擇

議氏歡迎宴盛大

汎太平洋會議
七名出席

西葡聯合飛行

米國의
今年剩餘金
五億萬弗

三國軍縮의米代表
十五일로內定된模樣

戰鬪準備頻繁

三億의巨額으로
財政的運命을
一賭하는震災手形案

特銀除外에苦慮

國民大會委員
十名檢束

日中最惠國約款
日本主張과漸次接近

出版著作法案
繼續委員會에

貴院兵役法案
各地에將施行

背任罪로
臺銀重役告訴

奮農會解散
四月三日에

八面鋒

〇〇會를秘密結社 全國에過激文配付

중대한운동을일으키고자비밀결사 동지모흐고과격문돌리다가잡히어 / 龍山署는突然大活動

십구일오컨여덟시경 시내 룡산서(龍山署)에서는 돌연히 공긔가긴장해지는 동시에 형사대는 급거히시내모처에 이르러 이십이삼세가량되어보이는청년두명을 인치하는동시에 과격(過激)한불온문서(文書)를다수압수해왓다는바 동서에서는 사건을절대비밀에부침으로 자세한 내용은알수업스나 모처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 두청년은시외고양군 룡강면 신공덕리(高陽郡龍江面新孔德里)이번디 신공청년회(新公青年會)회원최길룡(崔吉龍)(二三)과 동군 동면동리 일백삼십구번디 직공(職工) 오을산(吳乙山)(二三)의두청년으로서오래컨부터 〇〇회(〇〇會)란 회를 조직(組織)하고 암암리에 동지(同志)를모집하는일변 시내를 비롯하야전조선각처에 과격한 불온문서(不穩文書)를 배부한후 모모계획을 관철코저하는것을 소관룡산서(龍山署)원이탐지하고전긔와가티 톄포한것이라는바 사건의취됴를딸아의외로확대될는지도모른다더라

同貌를奇貨로 萬四千圓詐欺

남의인장위조해도디사긔 / 犯人은本町署에被捉

시내본뎡경찰서(本町警察署)에서는 지난십팔일 오후두시경에 시내청진동(淸進洞) 리모(李某)(三○)란 사람을 인치하고극비밀리에 엄중취됴를 하는중인데 그리유는 들은바에의하면 컨긔리모는 지난달 십일경에 충남아산군 신창면신속리(忠南牙山郡新昌面新速里)오괴환(吳槐煥)이가 자긔친구인 원광케(元廣濟)와 용모가 흡사함을리용하야 오괴환의 인장을위조하야가지고 원광케와 공모하야 시내립정뎡(笠井町)리병칠(李秉七)에게가서오괴환의소유토디를 매도하고 현금일만사천원을 편취한사실이라는데 이것은 근래에드문큰사건이라더라

公金橫領犯

강원도양양군양양면서문리(襄陽郡襄陽面西門里)에거주하며양양군령에군속(郡屬)으로 잇는 리두호(李斗浩)(三八)는지난대정십삼년십이월부터 대정십오년 구월까지양양군령에서 회계사무를 보며 공금일천사백이십삼원 삼십칠전을 횡령소비한것이 발각되어 지난칠일에 함흥디방법원에서 징역일년반의 판결을밧고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얏는데 그서류가십구일아츰에도착되엇다더라

桃花女子學院 音樂大會開催

시내관텰동(貫鐵洞)에림시사무소를둔 도화녀자학원(桃花女子學院)은 그동안김홍수(金興洙)씨가 단독으로경영하야 오는터인데 항상경비의 곤난을늣기는터이든바이번에사회각방면의동정을엇고자 오는이십오일 오후일곱시반에 종로 청년회관에서음악회를연다더라

東署에도重犯

돌려든수배는해제해버려 / 極秘裡各方面에活動

시내동대문경찰서(市內東大門警察署)에서는 사오일컨부터모방면에서 중대한시국범인 한명을톄포한후 또다시 각처로수배를하는일편 극비밀리에 엄중한취됴를 계속중이던바 십구일에는 전긔수배의 해제(解除)를각처로통긔하얏다더라

海月先生 百年祭

서적열람실과 농촌잡지발행

텬도교회에서는 오는 이십일일동교제이세교조해월선생의출세백년(第二世海月先生出世百年)을 긔념하기위하야 서적종람관(書籍縱覽館)의 건축과 농촌잡지(農村雜誌)의발행을계획하고 일방으로 백년긔념강습회(百年紀念講習會)를개최한다는것은 일일히 보도하엿거니와 긔념날이 림박한그교회에서는 계반준비에매우분망한모양이라더라

『라듸오』로宣傳

텬도교청년동맹에서는 긔념당일인 이십일일 상오십일시에 중앙교당에서 긔념식을마친후 동일하오한시에는 해월선생의 법설(法說)과동교리에대한리종린(李鍾麟)씨의긔념강연을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라듸오』로방송할터이고 동세시부터는『축졀리기』의여흥이잇다하며 텬도교월보사에서는 이십일 부터 사월오일까지 한하야 해월선생백년긔념시(詩)를현상모집한다더라

東部京城施設 完成促進을陳情

유치원설치문제도잇서 / 東部洞民大會의決議

경성부에서는 대경성을 건설하메 그시설이 커윽이공평치못하야 북부일대는 사소한텬재디변이잇서도 물의의 횡액을면치못하는중에도 더욱이 혜화동、숭일、이、삼、사동에는아즉도문화시설의 혜택을 입지못하엿슴에 분개한컨긔 오동민는부근유리승우、리용헌케씨의발긔로지십팔일 오후칠시에 숭정공립보통학교(崇正公普)내에서동민대회를개최하고

一、道路擴張 二、電車線路延長 三、下水道改築 四、道路撒水 五其他

等에대한 토의가잇섯든바 파연동대회는의미가 잇는것만큼 회장도 매우긴장되어 밤열한시가되도록 신중심의한결과 전긔사항의완성촉진을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경성부를위시하야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데출키로하고 그진정위원으로리승우(李升雨) 김완진(金完鎭)홍태현(洪泰賢) 태뎐(太田)죽촌(竹村)외 오씨를선뎡하고 이어서 부근에는유치원(幼稚園)이 업는것을 유감으로녁기고 유치원설치에 대한 토의도잇섯는데 그긔성회 위원으로김준연(金俊淵)박승텰(朴勝喆)외 팔씨를선뎡하엿다더라

櫻井町大火 全半燒十戶

원인과손해는방금됴사중

십팔일오후 여덟시 십분경에서 시내앵정뎡(櫻井町)이뎡목오십번디뎐천천대(田川千代)의집은돌(煙突)에서 불이일어 불길은삽시간에 부근가옥에까지 연소되어이웃인암긔사쿠(岩崎サク)나수기에(那須キエ)소무병위(沼茂兵衛)가등구사랑(加藤久四郞) 김호진(金浩鎭)박소사(朴召史) 산현마사(山縣マサ)등의집들을 모다전소 시키고복강삼치(福江三治) 삼륜량일(三輪良一)의 집을반소시키고 간신히진화하얏던바 십구일오컨네시오십분경에박소사와김호진의집 집봉에서 떨어진불똥이 또다시 발화한것을 소방대가출동진화한까닭에 큰일에는 이르지아니하얏는데원인과손해는방금됴사중이라더라

嬰兒의死體를 塵芥속에버려

지난십팔일오컨 열시 이십오분경에인천(仁川)부내리(內里)컨인천분감(仁川分監)뒤공디에영아(嬰兒)의시톄를 버린것을 인천부령뉘생인부가 쓸어기를 버리러갓다가 발견하고 곳인천경찰서에 급고한 결과동서에서는구목컨(久木田)의사와함께현장에 출장하야 시톄를검안하엿는바 그아이는 계집아이로지난십칠일오후 열한시 경에 사산(死產)한것인데 태줄을 끈허서길이약삼척 폭이약 이척사촌되는 흰부명에다가 태반(胎盤)과가티 그시톄를싸고 그우에다가 길이약이척이촌되는 흰부명으로 묵거서 버리엇섯다하며그부근은 인가가 희소하야증거를엇기가 곤난하든중 마츰그부근토굴(土穴)속에서자든『거지』의말에의하면 그전날밤 열한시경에이십일이세된조선부두파이를입은 녀자가한참동안놀두고긔도를 울리는소리를들엇다함을밧아 조선녀자의 소위도판명되엇다하며 그시톄는 행려사망자의 취급으로 인천부령에인도하엿다더라(인천)

眞友聯盟被告 豫審에抗告提出

예심종결서가잘못됏다고항고데출 법원당국은엇절줄을모르며당황해 / 大邱覆審에서受理審査

대구디방법원예심(大邱地方法院豫審)에서 거위일년이나 갓가운 오랜시일을두고 심리하든 대구진우련맹사건(大邱眞友聯盟事件)은지난팔월에야 비로소 예심종결(豫審終結)이되는 동시에공판에 부칫다함은 당시본보에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그 피고중 률원일웅(栗原一雄)은 돌연히 지난십칠일에 예심결정서(豫審決定書)에대하야항고(抗告)를데긔하엿슴으로 법원당국은 매우 당황망조하며 즉시동사건을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으로 옴기어 목하심의중이라는바 만일항고(抗告)의리유가상당하면 이때까지해노흔예심은전부버리고 처음부터 또다시 예심을하지아니하면 아니됨으로 일반대구사회는 크게주목하고잇는모양이며 뭇아서 대구디방법원에서예심결뎡서에항고를당해본것은오래동안참으로보기드문일이라더라(대구)

百萬圓大金으로 基督教衰退挽回

◇휴론大學辭職後매큔氏來鮮 / 宣教師團手舞足蹈

수년컨에선천신성학교(宣川信聖學校)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그동안미국에돌아가 조선교회와밋교육계의 재원을엇고저각방면으로 노력중이든『맥큔』씨는머지안하 조선에다시착임하야 종교교육방면에활동할터이라는바 듯는바에의하면이 즈음조선의예수교가쇠퇴되는경향에잇스며 또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가튼곳은 여러곳의컨은종교학교를폐지하고라도 더욱충실히할것과 련하야는종교의일반뎍신용을회복하며 교세를더욱확장하고저하야 이에대한여러가지를강구한결과 대학총장인맥큔씨를숭컨교장으로 초빙할운동을하든바 씨는쾌히대학총장을사임하고돌아올행장을수습중이라하며 이번맥큔씨는백만원의거금을모집하야가지고와서 모든종교학교의내용충실과각종사회사업에 긔부할터임으로조선종교계에긔독교의 황금시대를령성하리라고벌서부터 긔대되며이소식을 들은조선에잇는긔독교계에는소생하는빗이써보인다더라

春來不似春

本心만돌아오면 熱淚와長嘆

병세가발작되면아모의식업시웃고춤추고노래하고뛴다 / 東八號室訪問記【一】

인생(人生)이란 원래 악한것이냐 이것을길러내인사회제도(社會制度)가 글럿드냐? 량심대로뛰노는 어린아이들의 련진란만한 그모양을 이사회에물들어모든죄악의 세례를바든 장년한자들은 이것을 어린아이의작란이라고한다 또상당히 의식이발달될만한 시긔에 일은자로서이사회가 가르치는가면을 버서바리고 본능(本能)의 충동을그대로 표현하는자는 이것을정신에이상이생겻다고한다아ㅡ 이것이 그사람의 정신병인가이사회가 병뎍(病的)인가인데생리(人體生理)에 상식이업는우리는자못 그원인에 들어가의심하고자한다

박석고개를 못미처회춘원(回春院)을 왼편으로끼고슬비하게 느러슨 웅장한 총독부의원원사를뚝떨어져 산비알총림속에 보기만하야도 슬슬한 목관상건물이 이삼채나 늘어 섯스니 이것이세상에서 말하는총독부 의원동팔호실(東八號室)이다이세상이모다 봄빗에 깁버하나다만이곳은봄이나 가을이나 밤이나낫이나 구텬에 사모치는애끗는울음소리와 자긔의운명을 조상하는뜨거운눈물이끈어질사이가업스며 이막이지나면 인간성(人間性)이란말할것도업고 한낫동물로서도 아모의식이 업는다썩은고기토막이이악착한병세를딸하울녹이기시작한다

全朝鮮精神病者 二萬餘名의多數

이곳을차자간 긔자는 십년동안이곳에서 근무하얏다는 원의사(原醫師)를방문하고그들의안부를뭇게되엇다 이의사는 소문에 조선사람으로서일본사람의이름을지어가젓다는것만치조선사람에게는 불친절하야 그러한지는 알수업스나 모든사람을 볼쌔에역시 정신병자처럼 겁머를하며그집안에서는 입금노릇을 하든버릇으로 건방지기가 짝이업다긔자의 뭇는말에는빈드시보롱사람으로는 이야기를하야도 알기어렵습니다하며 자긔는의사라는것을 애써자랑하는 모양이다

현재수용되어잇는것은 사십오명에불과한대 그중에도 대부분이 일본사람이요 조선사람은 몃사람이 되지안는다고하는데 그의사의말을들으면 종조선인구가 이천만이라고 하고천명에한사람식은 정신병자라고하니 적어도 이만명이상이정신병자인데 이와진 시설이야창해일속의비나될수잇슬가

死刑求刑듯고 法廷에서怒號

법뎡에서연출된활극일막 / 殺人强盜犯最後發惡

강원도텰원군 텰원면중리(鐵原郡鐵原面中里) 리병호(李炳鎬)(二七)와밋그의아우 리여호(李汝鎬)(二三)의두명은 대정십사년륙월칠일밤에 금강산뎐긔텰도(金剛山電氣鐵道)의 정연리(亭淵里)정거장에서 김화군서면도창리(金化郡西面道昌里)로가는길가 송림속에서 강도질을할생각으로 각각 회중뎐등(懷中電燈)과 식칼(食刀)과 작란감 권총을 는하가진후 동야열한시경에 동면험석리(險石里)에잇는서사석(徐西石)의 주막을엄습하야 그날마츰그주막에투숙(投宿)하든 텰원군텰원면외촌리(外村里)사는최번디 소장사(牛商人) 최광삼(崔光三)(三七)과밋그의아우최광섭(崔光燮)(三二)을 식도로 목(頸)을 찔러죽이고 금시계(金時計)하나와 현금십오원을강탈한후 이어그이웃집들을 습격하야또한 강도를범행한것으로 작년십월십이일에경성디방법원에서리병호는사형(死刑)리여호는징역십오년의판결을밧고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야 그공소공판을십팔일오후 네시경에 경성복심법원 데삼호법정에서말광(末廣)재판장의 심리와하촌(河村)검사의 립회로개정하얏는데 검사가일심과가티 리병호는 사형 리여호는 징역십오년을 구형하얏는바 검사의구형소리가 미처떨어지자마자 리병호는 법정에서 소리소리질으고 날뛰며재판장과검사를욕하야근자에보기드문활극을연출하얏는데판결은오는이십오일에언도하리라더라

安州郡通過만 一日間近百名

리보 = 황해도곡산잇는 동포륙십여명이 경의선 신안주역을통과하야 지나간십사일에 서간도로 북행하엿스며 그이튿날에는평남순천군(平南順川)에잇는화뎐민(火田民)사십여명이도보로안주를지나서 간도로 향하야떠나갓스며 그날역시평남개천(平价川)에잇는 화뎐민남녀도유이십삼명은 컨과와 반대로강원도방면을 향하고 안주시가를지나서 남향하얏다는데 최근안주디방에는 이러케 여러십명이한명어리토 떠나는것은 물론삼삼오오로 혹은 북향혹은남향하는동포가뒤를 이어나날이 늘어가는비참한현상이라더라

李氏의特志

전북옥구군성산면 창오리(全北沃溝郡聖山面蒼梧里)에사는 리세제(李世濟)씨는 림피향교명륜당(臨陂鄉校明倫堂) 수선비로 사백원을지당하고이번에 수선을 하얏다는바 일반인사는 씨의 칭송이 자자하다고(강경)

종명자

▲한동안 잠잠하든 쇠헤 십구일 아츰에는 롱산서가 대활동! 동내문서가또눈이 동글! 이러가고거리가고야단들이더니또 무슨청년을잡엇다고

▲십팔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는 형데가강도질을하다가 남의형데를 죽인피고인이 사형(死刑)구형하는 검사에게법정에서소리를질으고 야단을쳣다고

▲남을죽일째에는나종의제생각을못하엿슬는지도모르나구형소리를들을째에는 제가남죽이든 그째생각은 낫슬터인데 마지막처분을나릴가하야단말마(斷末魔)의 비명성(悲鳴聲)을질으는것은어리석고 욕심만흔자의 일이야

▲넷날성인의말(言)인지장사에기언이선(人之將死其言善)이라고하더니 이것은그와아조반대인걸

孩城落日의普天教主 虞美人가튼李女史

개혁파의누의로교주의총첩돼 형세가나날이글르매필경자살 / 『車天子』幾乎落馬?

전북정읍군(全北井邑郡)립암면대흥리(立岩面大興里)보텬교중앙본소에는지금으로부터 며칠전에경북달성군(慶北達城郡)론곡면리리(論谷面裡里)에서리달영(李達榮)녀사주의부음이왓다는데 그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리달영녀사는 현금보텬교 개혁단의 한사람인 리달호(李達濠)씨의 누의로 최초에는경북 고령군(高靈郡) 도동한헌당(道洞寒暄堂)의 본손 김씨의집에 출가하엿다가 상부한후그의옵바 리달호를딸하 보텬교에종사하야 차씨에게 곱게보여동주(東主)라는 녀방주가되고 딸하서 그의총첩까지되엇다가 년컨에그의옵바 리달호씨가 처음으로 보텬교를개혁하랴고 대흥리(大興里)로 들어올 쌔의봉변으로 인하야 마음에여간애를태운바가 아니엇는데 금번개혁운동에 그옵바가 또두들겨맛고 죽게되엇다는소식을 듯자 마음에 고통이생겨서 울울한회포로자긔의 본집을다녀온다고 떠나서는 아모리생각하여도 죽는편이낫다는 결심으로 그의교주요 들재남편인차경석과 차씨의부인과 차씨의과거자부와 본소내감독서주(本所內監督西主)네사람에게 각각긴편지를 유서삼아써보내고는 고만 자살한것이라하며그부음이보텬교본소에오매차씨는대경한동시에해교에서는몃몃이가서치상에참예하고돌아왓다하며 그의보낸편지의내막은알수가업다더라(정읍)

芳年十九歲 大膽한女賊

녀학생차림으로부호내실에돌입 동정을구해가면서귀금속을절취 / 前科一犯의申福順

십구일 오컨에 시내종로서사법계에는 왼몸에 일본비단으로써신식녀자의 차림을 하고몸에얼맛지안는절도죄로 취됴를 밧고잇는 십팔구세의 녀자가잇섯다 그녀자야말로 벌서 월여전부터시내각처로 몰아다니면서 온갓교묘한수단으로 도적질을 감행하는 미인절도가잇서 시내각경찰서에서 그정톄를발견코자 하던수인공이라는데 그녀자는 황해도해주군(黃海道海州郡)출생인신복순(申福順)(一九) (일명창련(昌蓮))으로 원래부터 그와가티절도성을가져 작년이월십이일경에도 시내각처를 횡행하다가 필경에는음력년말 경계당시에시내종로서원에게톄포되어그동안서대문형무소에서복역중에 잇다가 지난일월이십삼일에 만긔출옥한후 면수보호회(免囚保護會)에서 삼일가묵다가그다음모일본인 간수의집 하녀노릇을하다가는 또다시 마음을고치지못하고 동간수의집을 몰래빠져나와 시내와룡동 삼십륙번디의리명구(李明九)의집에두류하면서지난삼월십이일에시내남대문외모부호의집에침입하야안주인을방문하고여러가지로이야기를하다가 주인의부주의한 틈을타서 십팔금보석반지한개와 기타귀금속등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야또십삼일에 시내 서대문밧모부호의집에서 역시 전긔와가튼수단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야던당질하다가 필경에는 또다시종로서에톄포되엇다더라

◇日曜講話 시내중앙긔독청년회(基督青年會)종교부(宗教部)에서는 이십일오후 세시부터장집(張執)씨를청하야『人格을造成하는秘訣』이란데하에 일요강화회를개최하리라고

亂暴한日女教員 硯石으로學生亂打

습자시간에자락햇다고 / 現場에는鮮血淋漓

함경선 신상역컨(咸鏡線新上驛前)에잇는신상공립보통학교(新上公立普通學校)에서 근무하는 일본인녀교원진진정강(津津見澄江)(三○)은지난십일 일학년(一學年)아동에게 습자를가르치는중 신리철(申履哲)(一三) 이란학생이 습자를안하고 분주히굴엇다고달려들어큰벼루돌로 그생도의뒷덜미를짜려 유혈이림리하야일시는살풍경을일우엇다는말을들은 학부형(學父兄)들은 십이일오후세시경에신하리(新下里)영생학교(永生學校)강당에서 학부형회(學父兄會)를열고선후책을 강구하엿다는바각청년단톄(青年團體)에서와 일반인사들도 일인녀교원의란폭한행동을 크게 분개하야선후책을강구중이라더라(신상)